

미국, 화학제품 수요 회복세 전환!

긍정적 경제지표 14개로 증가세 ... 투자지출 및 생산활동 가속화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은 미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화학산업이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2003년 7월 미국 화학산업의 긍정적 경제지표가 12개에서 14개로 증가함에 따라 3월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최근 실업률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약세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으나 최근 경제지표들로 볼 때 경기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2/4분 재고수준, 투자, 제조 및 생산주문 등 모든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쌓여있던 재고가 소진되고, 투자지출 및 생산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회복이 확실시 되고 있으나, 화학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코스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화학분야의 수요 또한 약세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기초 무기화학 및 합성소재 시장 강세에 힘입어 2003년 6월 기초 화학제품 생산량은 1.1% 증가한 반면, 가성소다(Caustic Soda), 염소(Chlorine),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및 PVC(Polyvinyl Chloride)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화학제품 생산량은 0.9% 증가했는데, 2002년 6월에 비해 1.5% 확대됐다. 코팅 및 공업용 화학제품 생산량 또한 2002년 6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전자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공업용 화학제품 생산량도 14.8% 증가했다.

미국의 2003년 6월 화학제품 출하액은 5월대비 0.5%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 4% 증가했다. 기초화학제품 및 특수화학제품 출하액은 각각 10.1%, 0.9% 증가했다.

<Chemical Journal 2003/09/22>